두보

杜甫

- 712~770
- 자는 자미(子美)
- 하남(河南) 공현(鞏縣) 출생
- 성당(盛唐), 중당(中唐) 시기에 활동
- 시성(詩聖)으로 칭송
- 우국우민(憂國憂民)의 현실주의 시편으로 유명

두보의 일생

● 독서유력시기(讀書遊歷時期)

<望嶽>,<房兵曹胡馬>

● 장안십년시기(長安十年時期)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 함적위관시기(陷賊爲官時期)

<春望>, <石壕吏>

● 표박서남시기(漂泊西南時期)

<春夜喜雨> ,<江村>

<聞官軍收河南河北>, <登高>

望嶽

岱宗夫如何 (대종부여하)?
齊魯青未了 (제로청미료).
造化鍾神秀 (조화종신수),
陰陽割昏曉 (음양할혼효).
蕩胸生曾雲 (탕흉생층운),
決眦入歸鳥 (결자입귀조).
會當凌絶頂 (회당능절정),
一覽衆山小 (일람중산소).

태산을 바라보며

태산은 대저 어떠한가
제와 노에 걸쳐 그 푸름이 끝이 없구나
조물주는 신령함과 수려함을 모아놓았고
산의 남북은 어두움과 밝음이 다르도다
씻긴 가슴엔 높은 구름이 일고
터질 듯한 눈으로 새들이 날아 돌아온다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자그마한 뭇 산들을 한번 굽어보리라

房兵曹胡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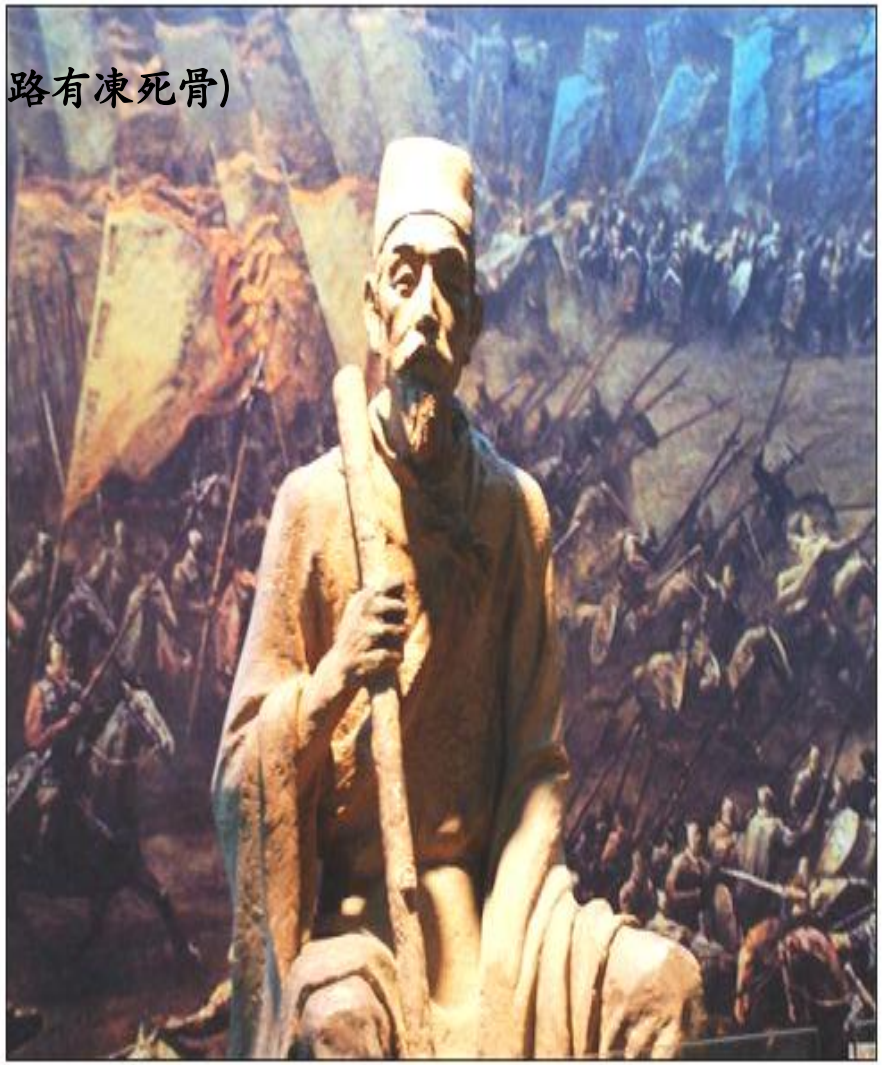
胡馬大宛名, (호마대완명),
鋒棱瘦骨成. (봉릉수골성).
竹批雙耳峻, (죽비쌍이준),
風入四蹄輕. (풍입사제경).
所向無空闊, (소향무공활),
眞堪托死生. (진감탁사생).
驍騰有如此, (효등유여차),
萬里可橫行. (만리가횡행).

방 병조의 호마를 노래하다

방 병조의 호마는 대원국의 명마
칼끝처럼 불거진 마른 골격.
두 귀는 깎은 대나무처럼 오똑하고
네 발굽은 바람이 든 듯 가볍게 달리네.
향하는 곳 멀다 할 곳 어디 있으랴
진실로 생사를 맡길 만하다네.
그대 이토록 용맹스럽고 날쌔니
만 리라도 마음대로 달릴 수 있겠네.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붉은 문에는 술과 고기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뒹구네(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
<중략>
문을 들어서자 통곡 소리 들리니
어린 아들이 굶주려 이미 죽었구나
이 슬픔을 어찌 마다하리요
마을 골목도 함께 오열하누나
부끄럽기는 사람의 아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요절하게 했음이여
<중략>
살아서 항상 세금을 면하고
전쟁에 끌려가는 일도 면했건만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 보면 오히려 신산하니
보통 백성들의 삶은 진실로 처량하여라
조용히 업을 잃은 이들을 생각하고
멀리 수자리하는 병졸들을 생각하니
이 근심 종남산 같아 끝도 없이 이어지는구나



春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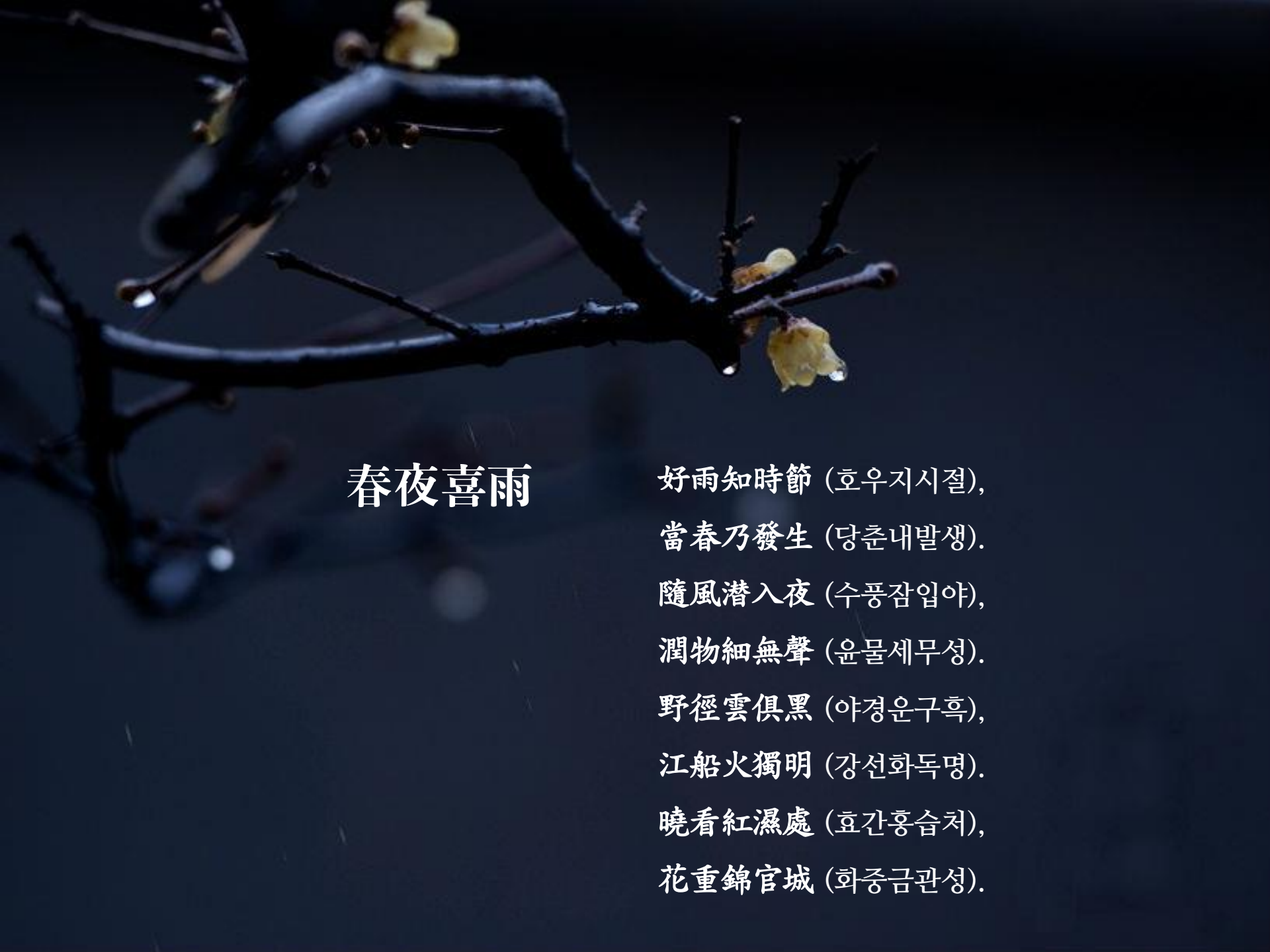
國破山河在 (국파산하재),
城春草木深 (성춘초목심).
感時花濺淚(감시화천루),
恨別鳥驚心 (한별조경심).
烽火連三月(봉화연삼월),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
白頭搔更短 (백두소갱단),
渾欲不勝簪(혼욕불승잠).

춘망

나라는 깨어지고 산하만 남았는데
성에는 봄이 와 초목이 짙구나
시절을 느끼어 꽃에도 눈물 뿌리고
이별을 한하여 새소리에도 놀란다네
봉화는 삼월을 연이어
집 편지는 만금에 달하고
희어진 모리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
거의 비녀를 이길 수 없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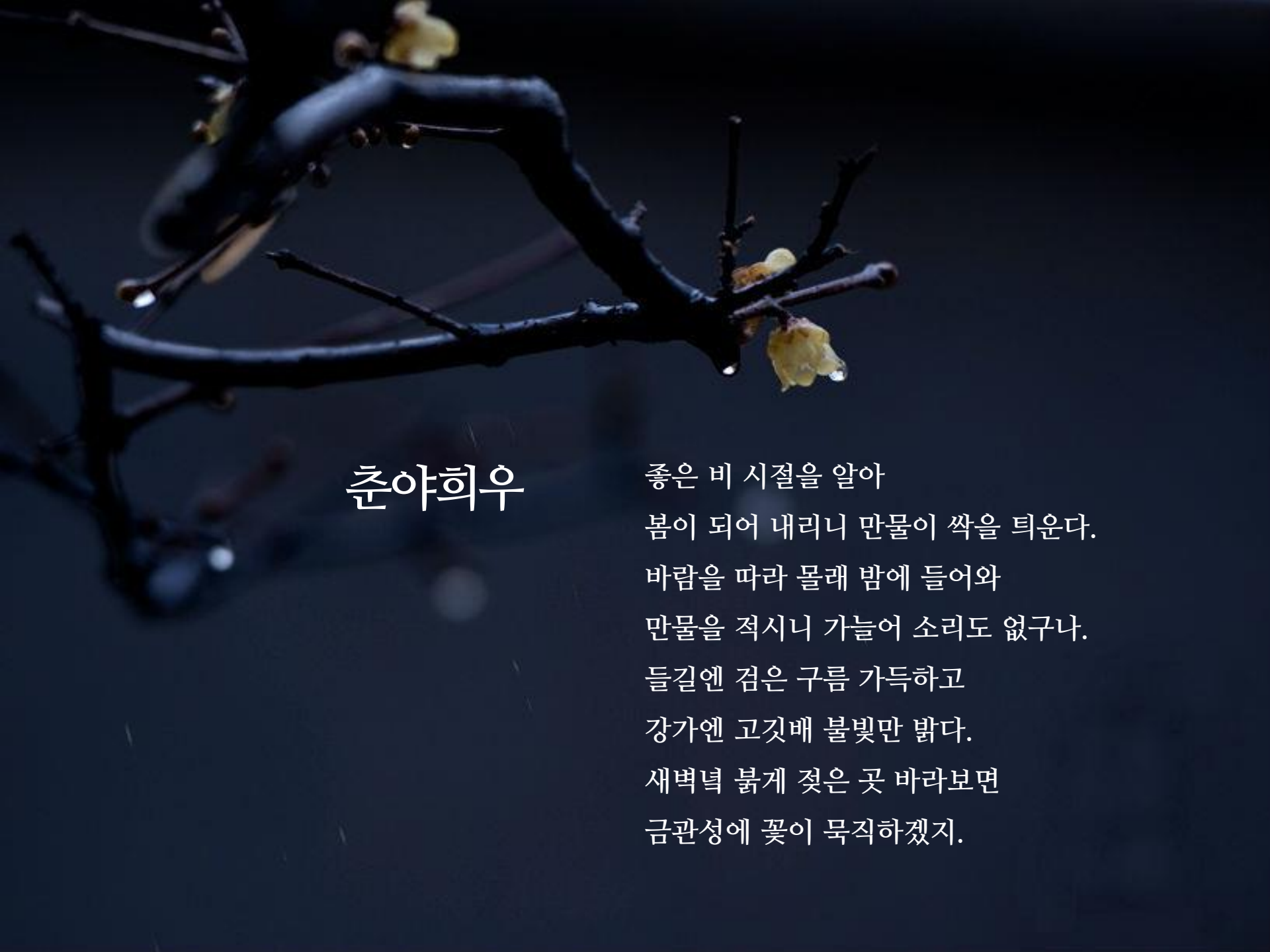
石壕吏

저물녘 석호촌에 투숙했더니
관리가 밤중에 사람을 잡아가네
할아버지는 담을 넘어 도망가고
할머니가 문을 나서 망을 보네
관리는 얼마나 격노하여 야단을 치는지
할머니는 얼마나 괴롭게 우는지
할머니 아뢰는 말을 들어보니
세 아들이 업성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한 아들이 두 아들 다 죽었다고 편지했네
산 사람도 구차하게 살아갈 뿐이지만
죽은 아들들은 영원히 끝난 것이라
안에는 오직 젖먹이 손자뿐
며느리는 출입할 변변한 치마조차 없다네
늙은 할망구 몸은 비록 쇠약하지만
나으리 따라서 밤에 전쟁터로 가리이다
급하게 하양으로 가면 새벽밥이라도 지을 수는 있다오
밤 깊어 숨죽여 오열하는 울음소리만 들렸는데
날 밝아 길을 나서며 홀로 할아버지와 이별을 하였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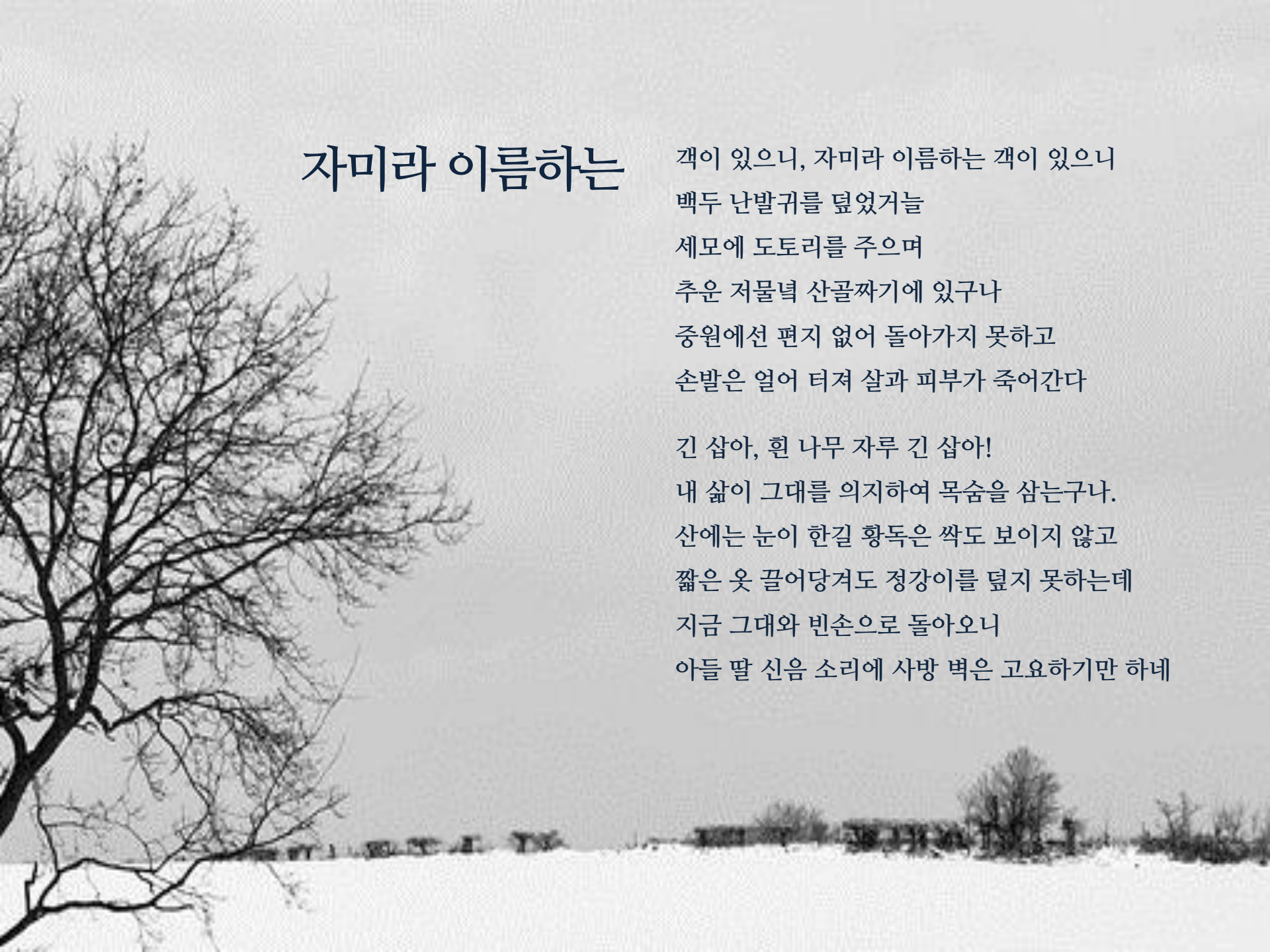
春夜喜雨

好雨知時節 (호우지시절),
當春乃發生 (당춘내발생).
隨風潛入夜 (수풍잠입야),
潤物細無聲 (윤물세무성).
野徑雲俱黑 (야경운구흑),
江船火獨明 (강선화독명).
曉看紅濕處 (효간홍습처),
花重錦官城 (화중금관성).



춘야희우

좋은 비 시절을 알아
봄이 되어 내리니 만물이 싹을 틔운다.
바람을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만물을 적시니 가늘어 소리도 없구나.
들길엔 검은 구름 가득하고
강가엔 고깃배 불빛만 밝다.
새벽녘 붉게 젖은 곳 바라보면
금관성에 꽃이 묵직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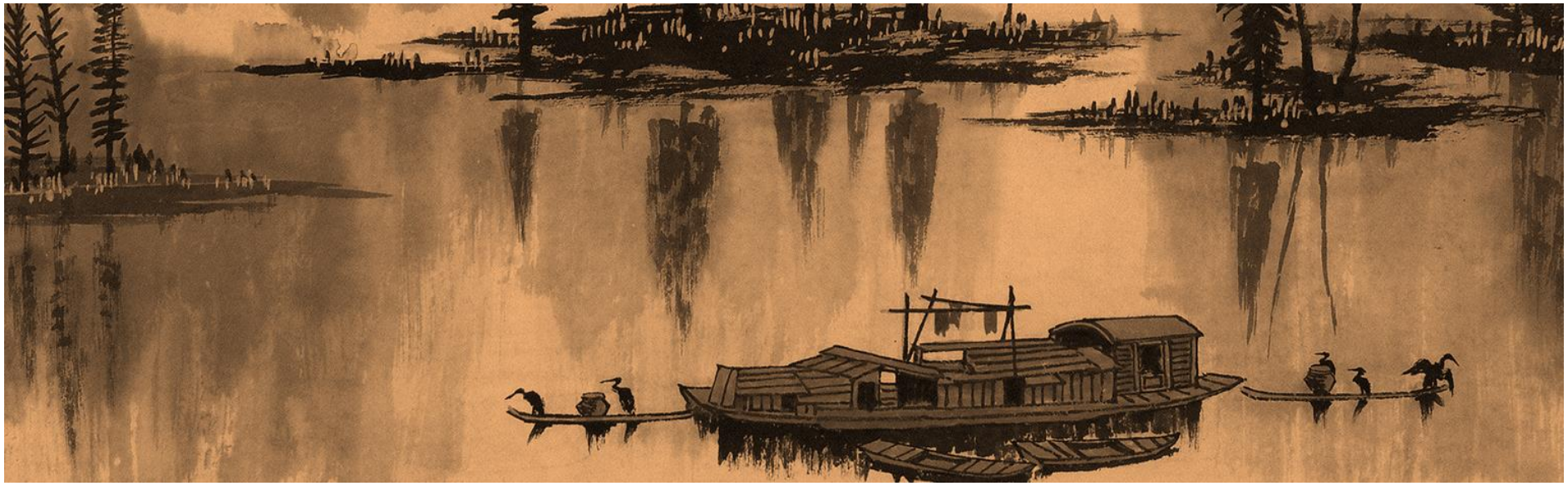
자미라 이름하는

객이 있으니, 자미라 이름하는 객이 있으니
백두 난발귀를 덮었거늘
세모에 도토리를 주으며
추운 저물녘 산골짜기에 있구나
중원에선 편지 없어 돌아가지 못하고
손발은 얼어 터져 살과 피부가 죽어간다

긴 삽아, 흰 나무 자루 긴 삽아!
내 삶이 그대를 의지하여 목숨을 삼는구나.
산에는 눈이 한길 황독은 싹도 보이지 않고
짧은 옷 끌어당겨도 정강이를 덮지 못하는데
지금 그대와 빈손으로 돌아오니
아들 딸 신음 소리에 사방 벽은 고요하기만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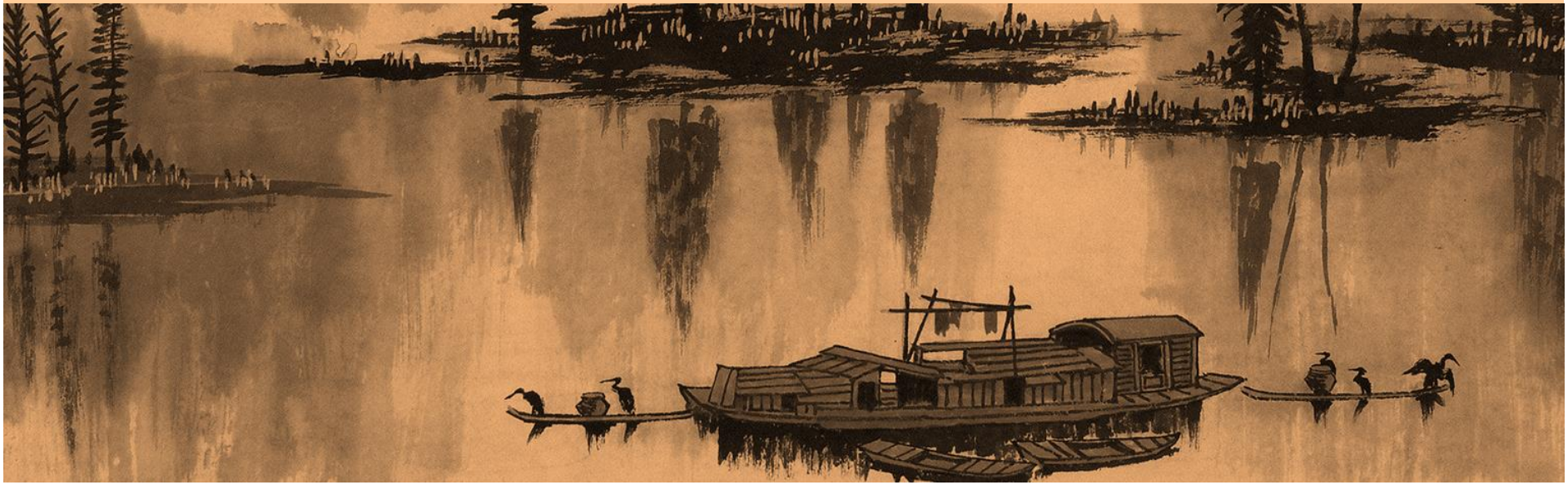
江村

清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自去自來堂上燕 (자거자래당상연),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강촌

맑은 강이 한번 굽어 마을을 안고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은 일마다 그윽하구나
절로 오가는 것은 대들보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한 것은 물가의 갈매기라
늙은 아내는 종이 위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들겨 낚시바늘을 만든다
벗이 보내준 쌀 또한 있으니
미천한 이 몸 또 무엇을 구하리



聞官軍收河南河北

劍外忽傳收薊北, (검외홀전수계북),
初聞涕淚滿衣裳. (초문체루만의상).
却看妻子愁何在, (각간처자수하재),
漫卷詩書喜欲狂. (만권시서희욕광).
白日放歌須從酒, (백일방가수종주),
青春作伴好還鄕. (청춘작반호환향).
即從巴峽穿巫峽, (즉종파협천무협),
便下襄陽向洛陽. (편하양양향낙양).

관군이 하남 하북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검각 밖에서 전해진 수복 소식이여
처음 듣자마자 펑펑 울었네
아내와 아이들도 벙글벙글
서책을 주섬주섬 기뻐 미칠 것 같네
대낮부터 맘껏 술 마시며 노래 부르나니
푸른 봄에 짝을 지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곧바로 파협을 출발해서 무협을 지나
금방 양양으로 내려가서 고향 낙양까지 향하리라

早發白帝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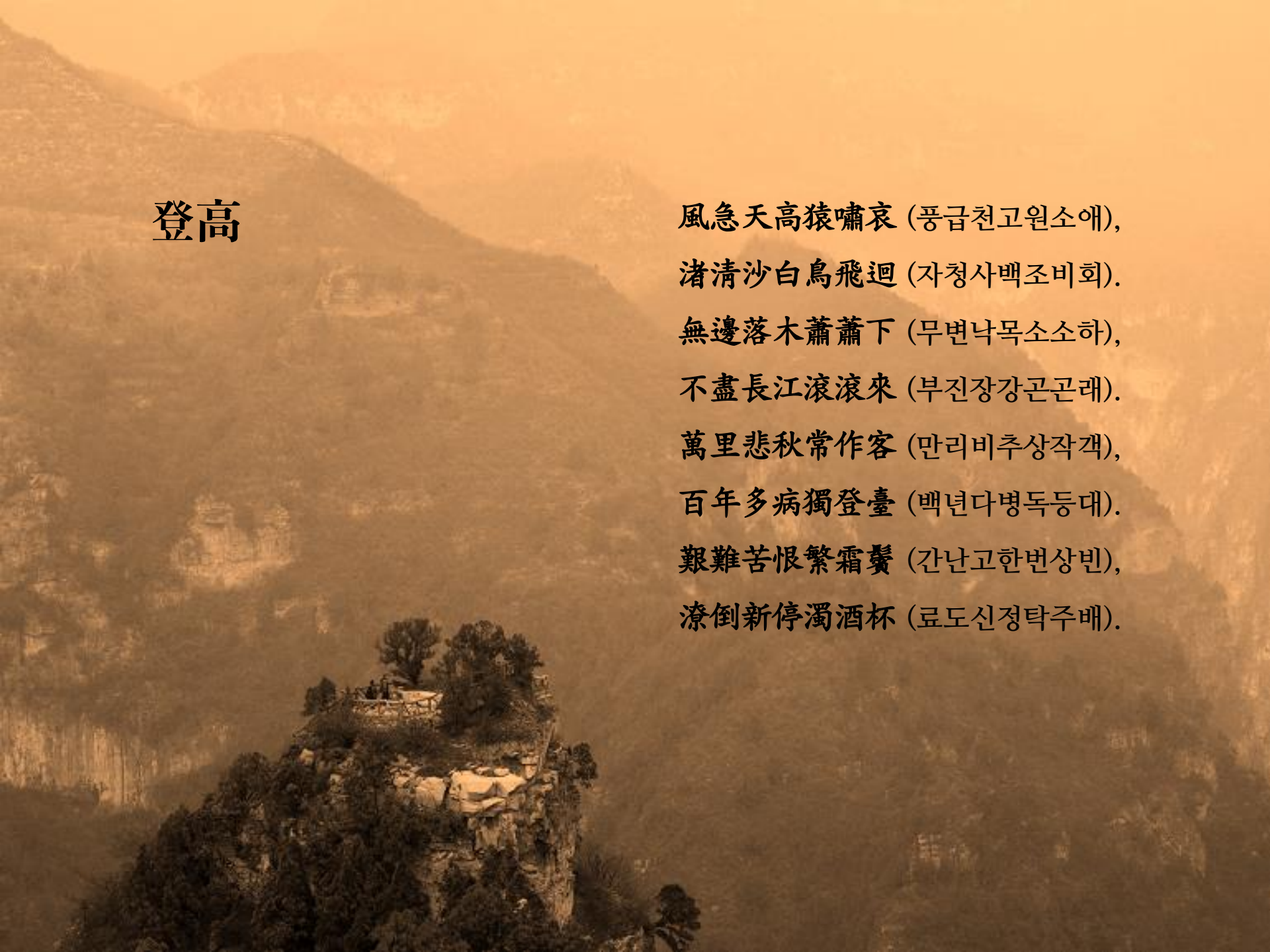
李白

朝辭白帝彩雲間 (조사백제채운간).
千里江陵一日還 (천리강릉일일환),
兩岸猿聲啼不住(양안원성제부주).
輕舟已過萬重山 (경주이과만중산),

아침 오색 구름 속 백제성을 이별하고
천리 강릉을 하룻만에 돌아간다네
양쪽 기슭 원숭이 울음소리 끊임없는데
가벼운 배는 벌써 만첩 산을 지났네

登高

風急天高猿嘯哀 (풍급천고원소애),
渚清沙白鳥飛迴 (자청사백조비회).
無邊落木蕭蕭下 (무변낙목소소하),
不盡長江滾滾來 (부진장강곤곤래).
萬里悲秋常作客 (만리비추상작객),
百年多病獨登臺 (백년다병독등대).
艱難苦恨繁霜鬢 (간난고한번상빈),
潦倒新停濁酒杯 (료도신정탁주배).



높은 곳에 올라

바람 세고 하늘 높아 원숭이 울음소리 애절하고,
맑은 강가 흰 모래밭에 새 날아 돌고 있다.
끝없이 낙엽은 쓸쓸히 내리고,
다함없는 장강은 굽이쳐 흐른다.
만리타향 늘 객이 되어 가을을 슬퍼하고,
평생 병이 많아 홀로 누대에 오른다.
간난에 시달려 희어진 머리 많아 슬퍼하는데,
노쇠한 요즈음 탁주마저 그만두었어라.

감사합니다.